재외동포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1. 12.(목) 16시

고려인 강제 이주 역사 화폭에 새긴 故 신순남 화백, 11월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

- 어린 시절 강제 이주 직접 겪어...대표작 「레퀴엠」에 고려인의 고난과 삶 담아
- 1997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작품 기증...고려인 역사 고국에 알려

【관련 국정과제】(예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고려인 강제 이주의 아픔과 삶을 작품으로 남기고, 그 역사를 고국과 세계에 알린 故 신순남 화백(1928~2006)을 11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신 화백은 1928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태어나 아홉 살이던 1937년 스탈린 정권의 고려인 강제 이주를 직접 겪었다.

○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화가로 활동하면서 어린 시절 목격한 비극과 낯선 땅에서 살아온 고려인들의 삶을 작품에 담았다.

□ 그의 대표작 「레퀴엠」 연작은 고려인 강제 이주의 비극을 다룬 작품으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과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고난 속에서도 삶을 이어온 이들의 모습을 그렸다.

○ 특히 「레퀴엠-한민족 유민사」는 44m 이르는 대작으로, 강제 이주로 고향을 잃은 고려인들의 삶과 죽음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펼쳐내며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민족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 신 화백은 강제 이주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 1997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초대전「수난과 영광의 유민사」를 열어 고려인들의 역사를 고국에 알렸다.

○ 당시 국내에는 고려인 강제 이주의 실상과 이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살아온 역사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신 화백의 작품은 고려인들의 아픔을 우리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기억하는 계기가 됐다.

○ 신 화백은 「레퀴엠-한민족 유민사」을 비롯한 작품 64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해 고려인의 역사와 자신의 예술적 성취를 고국에 남겼다.

□ 신 화백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예술 공로상'을 받았으며, 우리 정부도 1997년 문화예술분야 최고 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해 그의 업적을 기렸다.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신순남 화백은 어린 시절 겪은 강제 이주의 아픔을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 남기고, 고국에 기증해 고려인의 역사를 우리 국민과 나눈 분"이라며 "그가 남긴 작품은 세계 곳곳에서 역경을 딛고 살아온 재외동포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책임자	과장 한리자 (032-585-3154)
		담당자	주무관 우지연 (032-585-316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